

## 손경식 CJ그룹 회장, 세종대서 명예박사 학위 수여

손경식(사진) CJ그룹 회장이 19일 세종대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백덕호 세종대 총장은 “손 회장은 CJ그룹을 이끌어 한국의 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데 기여했고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대한상공회의소 명예회장을 맡아 경제, 외교, 사회 분야에서 대한민국 발전에 힘쓰고 있다”고 학위 수여 배경을 설명했다. 정정욱 기자



##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나는 정몽구 회장의 업적과 현대차의 과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2016년 슬로바키아 질리나 시에 위치한 기아자동차 유럽공장(왼쪽)과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현대자동차 러시아공장을 방문해 생산·판매 전략을 점검하고 있다. 정 회장은 현장에서 “지금껏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현대·기아자동차가 성장을 이룬 것처럼 앞으로도 해외 판매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계기로 삼자”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 현대차



## 세계5위 자동차 그룹 이끈 ‘품질경영 신화’

IMF 때 기아차 인수 회생 성공 19년간 자산 34조서 234조 늘려 해외공장 건설 유례없는 고성장 美서 10년 10만 마일 보증 유명 올해 ‘자동차 명예의 전당’ 헌액 현대차 그룹 지배구조 개편 속제

### ●품질경영과 해외 시장 개척으로 세계 최단기간 글로벌 5위 달성

정 명예회장은 품질과 현장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리더십으로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자동차 전문그룹을 출범시키고, 자동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부품산업과 소재산업을 비약적으로 성장시켰다.

1999년 IMF 외환위기 당시에는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극심한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과감하게 기아자동차를 인수해 성공적으로 회생시켜 글로벌 자동차 업체로 육성했고, 한보철강과 현대건설을 인수해 세계적 기업으로 일궈냈다.

2000년 9월 기준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10개 계열사의 자산 규모는 34조 400억 원에 불과했지만, 2019년말 기준으로 54개의 계열사와 총 234조7060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그룹으로 진화시켰다.

정 명예회장의 저력은 해외 시장으로 영역을 넓혀가며 진가를 나타냈다. 글로벌 주요 지역에 현지 공장을 건설하며 전 세계 자동차 업체 중 유례가 없는 빠른 성장을 이끌었다.

또한 정 명예회장은 전 세계에 균일한 고품질의 생산공장을 적기에 건설할 수 있는 표준공장 건설 시스템을 확립했으며, 글로벌 시장을 직접 발로 뛰며 생산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현장경영을 펼쳤다. 특히 높은 품질을 바탕으로 미국시장에서 실시한 ‘10년 10만 마

일’ 보증 카드는 현대·기아차가 글로벌 강자로 성장하는 토대가 됐다.

서플라이 체인 혁신을 매개로 협력업체의 글로벌 성장도 촉진했다. 현대·기아차가 해외공장을 건설하면 국내 부품업체가 공동 진출했는데, 이는 정 명예회장이 강조한 동반성장 의지의 결과물이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은 선순환형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산업의 ‘쌀’로 불리는 철강을 생산하는 일관제철소를 건설해 국내 소재산업 도약도 이끌었다. 일관제철소는 그룹 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세계 최초로 자원순환형 사업구조를 갖춰 기업의 환경에 대한 책임과 지속가능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 명예회장은 이 같은 혁신 리더십과 경영철학을 인정받아 올해 세계 자동차 산업 최고 권위의 ‘자동차 명예의 전당(Automotive Hall of Fame)’ 헌액 대상자로 선정됐다.

### ●현대차 그룹의 남은 과제는 그룹 지배구조 개편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이 그룹 내 모든 등기이사직을 내려놓고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나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 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안정적인 경영 승계를 위한 그룹 지배구조 개편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현대차그룹이 올해 지배구조 개편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부터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상장사 중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 30% 미만인 회사는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오너일가 지분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정 의선 회장 등 오너 일가가 보유한 현대글로비스 지분(29.9%) 가운데 10%를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업계에서는 이 지분 매각 과정에서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편도 동시에 단행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기아차→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 △기아차→현대제철→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 △현대차→현대제철→현대모비스→현대차 △현대차→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현대차 등 4개의 순환출자 구조로 짜여 있다. 국내 10대 대기업 집단 가운데 외부 투기자본 공격에 취약한 순환출자를 깨지 못한 곳은 현대차그룹 뿐이다. 정 의선 회장 체제를 맞은 현대차그룹이 어떤 방식으로 순환출자를 깨고 지배구조를 개편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 ‘겨울 낭만 트레킹 선발대’ 주요사항

- ▶ 모집일정 : 2월22일~3월1일
- ▶ 참가일정 : 3월5일~3월14일
- ▶ 부문 및 인원 : 트레킹 코스 8개 중 택1 선착순 200명
- ▶ 응모방법 : ‘겨울 낭만 트레킹’ 공식 인스타그램에 DM 응모
- ▶ 참가방법 : GPS앱 활용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개별트레킹
- ▶ 혜택 : 패키지(하이킹양말, 트레킹용 보틀, 트레킹 판초), 완주 인증메달 증정



## “강원의 무공해 설경보러 트레킹GO”

관광공사-강원도, GPS앱 활용 비대면 트레킹 진행

한국관광공사는 강원도와 손잡고 도내 청정자연의 겨울 트레킹 매력을 알리는 ‘겨울 낭만 트레킹 선발대’를 3월14일까지 진행한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행사로 비대면(언택트) 여행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은 트레킹 여행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인 디지털 기기의 GPS앱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큰 특징이다. 참가자는 개별적으로 GPS앱을 이용해 자신이 선택한 트레킹 코스를 걸은 뒤에 이를 인증받는다.

트레킹 코스는 총 8개로 5.8km의 평장 선자령 코스를 비롯해 일몰과 발왕수로 유명한 용평리조트 발왕산 코스(3개 코스), 함백산 능선의 정선 하이원 하늘길(2개 코스), 이스타그라마를 명소 인제 자작나무 숲(7.4km), 태백 삼수령 코스(6.6km) 등 강원도 청정자연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구성했다.

신청은 행사 인스타그램(instagram.com/korea\_trekking)에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하면 된다. 기타 이벤트 안내 및 자세한 내용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 “외식물가 비상...서민 지갑 점점 얇아지네”

원재료 상승으로 베이커리·패스트푸드 가격 인상

외식업계의 연이은 가격 인상에 소비심리 위축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긴 장마와 잦은 태풍 등 이상 기후와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AI) 등의 악재로 밀가루, 버터, 치즈, 달걀, 고기 등 원재료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업체의 경우 CJ푸드빌 푸레주르가 지난달 22일 90여 종의 제품 가격을 약 9% 인상한 데 이어, SPC 파리바게트는 18일 총 95개 품목에 대해 가격을 평균 5.6%가량 올렸다. 망콩크림빵이 1200원에서 1300원으로, 소보루빵이 1100원에서 1200원으로 상승했다.

햄버거 패스트푸드 업체도 마찬가지다. 롯데리아는 1일 버거와 디저트 등의 가격을 100~200원 인상했다. 버거류 13종, 디저트류 7종, 드링크류 2종, 치킨류 3종 총 25종 평균 인상률은 약 1.5%다.

맥도날드도 25일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조정한다. 버거류 11종을 포함해 총 30종으로 100~300원 인상한다. 평균 인상률은 2.8%다. 맥도날드는 “지속적인 원재료 가격 상승 속에서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고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할인 플랫폼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 건강 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 퇴행성관절염, 조기에 정형외과서 증상별 맞춤 치료해야

퇴행성관절염은 노화나 외부 충격 등으로 인해 연골이나 관절을 이루는 뼈와 인대 등이 손상되며 염증과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을 일컫는다. 주요 증상은 무릎 전방에 걸린 통증이다. 처음에는 오래 걸거나 계단을 오르는 등 무릎을 과하게 움직일 경우에 통증이 나타나지만 질환이 진행될수록 움직임이 없을 때에도 통증을 느낄 수 있으며 열감이나 부기를 동반하기도 한다. 만약 방치한다면 연골이 닳아 없어지며 다리가 O자 모양으로 휘게 되는 등 변

형이 생기기도 하므로 조기에 정형외과에 내원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

퇴행성관절염은 진행 단계에 따라 총 4기로 분류할 수 있다. 1기는 정상인과 크게 다르지 않아 미미한 골변화 등의 증상이 관찰되지만 2기부터는 연골이 닳으며 관절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후 3기를 지나 4기에 이르게 되면 연골이 완전히 마모돼 무릎 뼈가 유착 현상을 일으켜 극심한 통증이 발생되며 인공관절치환술이 불가피해진다.

따라서 가능한 조기에 최대한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비침습적인 치료가 진행돼야 하며 힘줄과 인대의 손상이 시작되기 전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에 주사치료 등을 통해 통증을 조절하는 가운데 운동치료와 스트레칭 등을 시행해 관절의 통증 완화와 강화를 꾀하게 된다. 이외에도 약 1cm 정도의 최소 절개 하에 이뤄지는 관절내시경 수술을 통해 문제가 생긴 관절 부위를 직접 확인함과 동

시에 치료할 수 있으며 줄기세포(카티스템) 치료를 통해서도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다.

카티스템은 제대혈 줄기세포를 주입해 연골을 재생시켜 관절을 되살리는 치료법으로 시술 후 2~3일 후에 퇴원할 수 있어 빠른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하다. 다만 이와 같은 비침습치료를 호전되지 않는다면 근위경골 절골술이나 인공관절치환술과 같은 수술적 치료가 시행돼야 한다.

강남YK병원(강남외이케이병원) **윤재용** 원장(정형외과 전문의)

